

■ 2026 새해설계 김철우 보성군수

“민선 7·8기 결실… 확실한 성공으로 보답할 것”

본예산 7000억 시대·소외 없는 복지·든든한 행정 추진
지역 특화작목 육성·기계화 확충 등 제2부 흥기 도약

“민선 7기 그리고 민선 8기. 이제 영광의 결실, 확실한 성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2026년 신년사를 통해 “벽을 문으로, 틈을 기회로 바꾸며, 군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굳게 지켜왔습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선 7~8기 보성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종합평점 평가에서 단 한 해도 빠짐없이 4년 연속 대한민국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대한민국 공공기관 평가 역사상 유일무이한 최초이자 최고의 성과이며, 군민, 공직자, 유관기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뤄낸 결실이다.

군은 올해 개청 이래 최대이자 최초로 본예산 7000억 원 시대를 열었고, 소외 없는 복지와 든든한 행정에 나선다.

지역 상권을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설 명절 이전 전군민 1인당 30만원,

114억 원 규모의 보성사랑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보훈·참전 명예수당 인상 조례를 시행해 보훈명예수당은 월 10만원, 참전명예수당은 월 15만원으로 인상하고, 보훈 시설 개선과 보훈 가족 의료비 지원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보훈 정책을 이어간다.

출생기본소득을 1~18세 월 20만원 지원하고 수막구균성 수막염·백일해·지궁경부암·인플루엔자 등 고비용 필수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홀로 계신 어르신과 1인 가구를 위한 고독사 예방 스마트 애심서비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응급 키트와 휴대용 비상 호신벨 지원,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보성형 통합돌봄 시행 등이 추진된다.

‘다 함께 잘사는 농림축산어업’을 목표로 지역 지원을 활용해 농업의 체질을 개선한다.

군은 농업인이 일한 만큼 정당한 소득을 얻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저탄소 농업과 스마트 영농 확대, 지역 특화 작목 육성, 기계화 기반 확충 등을 추진한다.

또 기축분뇨 퇴비살포기 지원,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확대, 약취 저감 기술과 방역시설 확충, 업체별 맞춤형 수출 지원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농정을 훈련 없이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보성녹차가공유통센터 기능 고도화와 말차 가공·유통시설 현대화, 평지다원 조성을 통해 보성차의 제2 부흥기를 누린다는 방안이다.

군은 키워 산업을 보성 농업의 미래 성장축이자 소득을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신한력 플러스사업을 통해 키워 거점센터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국가중요어업유산인 보성 빨교어업

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과 보성별교 세계 자연유산 지역관련센터 조성, 벌교고마리본 프로젝트를 통해 보성의 해양·어업 자산을 세계가 주목하는 보성의 가치로 키울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이 어우러진 매력도시 만들기

위해 미국 미디어시 서재필기념관에 보성정원을 조성하고, 민족음악가 채동선 악보 원고 보존 사업을 추진해 보성의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국제적으로 확장한다.

산업과 일자리의 기반도 한층 더 공고히 한다.

조성 제2농공단지 분양을 본격화하고, 조성·미역 농공단지 폐기지 지원사업과 벌교 농공단지 내 청년문화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기업은 성장하고 청년은 머무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시설 개선, 벌교 버스터미널 새단장, 대중교통비 지원(K-패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통해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권역별 균형 있는 발전으로 보성 전역의 잠재력을 키운다.

올해 개장하는 보성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벌교 문화복합센터를 중심으로, 이제 보성에서는 일과 후에 볼링을 즐기고 수영을 배우며, 휴일에는 가족센터, 키즈카페, 작은영화관에서 가족과 함께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문화·여가 환경이 펼쳐진다.

아울러 생태습지와 연계한 힐링 향토길 조성, 보성 차정원 조성, 부용산 도시생활공원 조성, 벌교 섬공원 조성, 벌교 공용버스터미널 새단장을 통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맞춤형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김철우 군수는 “시가지 지중화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추진해 어디에 살아도 불편하지 않고, 어디를 가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보성을 만들겠다”며 “도끼를 비늘로 만드는 성장은 단숨에 오지 않는다는 ‘초심불망 마부직침’처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가치를 지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구례, 지난해 인구 감소세 둔화

구례군의 인구 감소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구례군에 따르면 구례군의 인구는 지난 2022년 말 2만4655명, 2023년 2만4314명, 2024년 2만4025명, 2025년 2만3803명으로 감소세가 지속됐다.

하지만 인구 감소율은 2022년 2.3%, 2023년 1.4%, 2024년 1.2%, 2025년 0.9%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는 군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과 정주환경 개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은 지난 2022년부터 청년하우스 건립(32세대), 워킹 콘스테이션(24실), 로그인하우스 건립(55세대), 공동주택보조지원사업(3단지), 농촌유학 활성화 주택수리사업지원, 농촌유학티운제1·2단지 조성(46실)은 온당지구 신구마을 조성(30세대)과 산동지구 명소화 조성, 그린케이션 관광스테이조성 등 여러 정주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인신자원금 지원, 출산 가정 산후관리비 지원 등을 해오고 있다. 이 같은 지원책에 따라 군으로 들어오는 청년자는 늘고 떠나는 청년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례=김귀진 기자 kkjin@



노관규 순천시장은 최근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만나 순천 미래첨단 소재 국가산단 후보지에 정부 전략산업인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공식 건의했다.

순천,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나섰다

전력·용수·정주여건 강점…전남도에 공식 건의
노관규 시장 “수도권 반도체 한계 극복 최적지”

순천시가 전남도에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공식 건의했다.

순천을 포함한 전남 동부권은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전력, 용수, 정주 여건을 완벽히 갖추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15GW 이상의 전력 공급이 가능한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50억 원의 저수량을 보유한 주암댐·상사댐의 안

정적인 산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다.

또 광양항·여수공항 등 수출인프라와 광양만권 배후도시인 신대·선월지구와 국가정원 등 우수한 정주여건을 갖춰 RE100 완결형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기 위한 최적지로 평가된다.

시는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으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는 전남 동부권 석유화학·철강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산업구조 대전환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여수·광양 소재 포스코, 남해화학 등은 화학 업종을 스페셜티(반도

체 특수원료)로 전환하고, 반도체 협력 기업을 인수하는 등 기업의 핵심 주력 산업을 재편하는 작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시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의 한계를 극복하고, 반도체 생태계를 남부권으로 확장하는 정부 의지에 발맞춰 RE100 반도체 국가산단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을 유치해 전남 동부권 산업 판도를 재편하겠다는 전략이다.

광주의 반도체 첨단파키징 역량과 전남의 반도체 제조·소재·물류 기반을 연결한 광주·전남 반도체 협업체 구축은 통합의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줄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박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여수,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전남 최대’ 규모

343억 투자 8100명 대상

여수시는 최근 여수문화홀에서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합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여수시니어클럽 등 8개 수

에 참여하는 어르신 등 4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발대식은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다지는 결의문 낭독과 함께, 전문강사를 초빙한 안전교육이 진행돼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활동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수시는 전남 ‘최대’ 규모로 343억원

곡성, 유기질비료 공급업체·물량 확정

35개소·혼합유기질 등 83만8519포

곡성군이 유기질비료 공급업체와 농가별 공급물량을 최종 확정했다.

군은 최근 202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2026년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공급관련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농협중앙회 곡성군지부, 각 지역농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기질비료 공급업체와 농가별 공급물량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농가는 신청한 공급업체에 대한 생산여건, 제품 품질, 주문물량 공급 가능 여부, 운송거리를 검토해 35개소를 확정했다. 공급물량은 농가 신청물량, 재배 면적, 재배작물 등을 고려해 혼합유기질 9만3055포, 혼합유기 2만4574포, 가축분뇨 71만5662포, 퇴비 5228포로 총 83

만8519포로 결정했다.

유기질비료 사업은 농림축산부산물의 지원화, 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을 공급으로 토양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혼합유기)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기축분퇴비, 퇴비)에 대한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유기질비료는 비종별 및 등급별로 분류해 2090년에서 2590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다. 유기질비료는 포/20kg당 2400원을, 부숙유기질비료는 지역 업체는 포/20kg당 2590원, 타 지역 업체는 등급별로 포/20kg당 2090원에서 2390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gwangnam.co.kr



곡성군은 최근 202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2026년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공급관련협의회’를 개최했다.

광양,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 선정

문화관광형·경영패키지 추진

광양시가 2026년 제1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시는 공모 선정을 기자로 광양5일시장, 광양매일시장, 종마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특성에 맞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과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해 시민과 관광객이 더 자주 찾는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광양5일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대상지로, 광양5일시장·광양매일시장·종마시장은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은 1년간 추진되며 상인 교육을 통해 시장의 자생력을 함께 키워 나갈 방침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kkjin@